

SPORTS ‘치열한 순위 싸움’ KIA, 중상위 도약 노린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15~17일 광주 kt전...18~20일 잠실 두산전 7승 10패 리그 9위...네일·김도현 활약 기대

시즌 초반 험로를 걷고 있는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중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롯데자이언츠에 워닝시리즈를 거둔 뒤 주말 SSG랜더스에 1승 1패(1경기 우전취소)를 기록했다. 그 결과 7승 10패 승률 0.412를 기록, 스페 마진은 마이너스(-3)지만 순위는 9위로 올랐다. 올 시즌 초반 연이은 부진으로 최하위까지 추락했으나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재 프로야구 순위 경쟁은 치열하다. 4경기 차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1강 LG트윈스(14승 3패)를 제외하고 SSG(4.0게임차), kt위즈(4.5게임차), 삼성라이온즈(4.5게임차)가 반게임차 안에서 2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간극이 좁은 만큼 LG 또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신한 Sol-Bank KBO 리그 중간 순위(1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17	14	3	0	0.824	0		
2	SSG	15	9	6	0	0.600	4		
3	KT	17	9	7	1	0.563	4.5		
4	삼성	18	10	8	0	0.556	4.5		
5	롯데	19	8	10	1	0.444	6.5		
6	NC	16	7	9	0	0.438	6.5		
7	두산	19	8	11	0	0.421	7		
7	한화	19	8	11	0	0.421	7		
9	KIA	17	7	10	0	0.412	7		
10	키움	19	7	12	0	0.368	8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의 차이 역시 미미하다. 5위 롯데(6.5게임차)부터 10위 키움히어로즈(8.0게임차)까지는 고작 1.5게임차로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리그 9위 KIA는 이번 주 상위권 kt와 중하위권 두산(7.0게임차)을 상대로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중상위권으로 단번에 치고 올라갈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KIA 마운드가 힘을 내야 한다. 현재 KIA는 팀 평균자책점 8위(4.80)를 기록 중이다.

선발에서는 양현종(4경기 3패 20.1이닝 평균자책점 6.64)과 윤영철(2경기 2패 3이닝 평균자책점 24.00)이 극심한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4경기 2승 25이닝 14피안타 18탈삼진 평균자책점 0.36으로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평균자책점 부문 1위에 오를 만큼 실점이 거의 없이 팀 승리를 이끌고 있다. 5선발 김도현(3경기 17.1이닝 18피안타 12탈삼진 평균자책점 1.56) 또한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는 중이고, 새 외인 아담 올라(4경기 2승 1패 24이닝 평균자책점 3.75)는 제 몫을 해주고 있다.

볼펜(평균자책점 6.48·10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팀 승리를 위해서는 선발진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김도영과 김선빈의 부상 공백을 겪고 있는 타선은 말 그대로 분전이다.

KIA는 올 시즌 팀 타율 7위(0.283)에 위치했

다. 안타 142개(7위), 홈런 19개(2위), 출루율 0.336(6위), OPS(출루율+장타율)도 0.742로 4위에 올랐다.

이 중 ‘해결사’ 최형우가 15경기 56타수 18안타 2홈런 7타점 타율 0.321로 꾸준히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외인 패트릭 워즈넵 또한 상승세가 무섭다. 지난 주 5경기에서 17타수 5안타 2홈런 3타점 타율 0.294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13일 SSG와의 경기에서는 KBO 데뷔 첫 멀티홈런을 만들었다. 이날 2회말 무사 1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린 그는 7회말 1사에서 중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시즌 6·7호 홈런을 한 경기에서 터트리면서 홈런 부문 단독 1위(7개)를 달리는 중이다.

주장 나성범도 지난주 5경기에서 20타수 6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300을 기록하며 공세를 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를 kt와 치르게 된다.

kt는 현재 9승 1무 7패 승률 0.563으로 리그 3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2.81로 최상위권(2위)이다. 하지만 타율 9위(0.238), 출루율 8위(0.325), OPS 8위(0.655) 등 타선은 KIA를 밀치고 있다. KIA가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막는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kt는 고영표를 15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kt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잠실에서 두산을 상대한다.

‘다랜딩 챔피언’ KIA가 kt와 두산을 차례로 꺾고 순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뉴욕서 빛난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타율·OPS 등 리그 상위권 질주

‘바람의 손자’ 이정후(26)가 2025시즌 초반 엄청난 화력을 뽐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이정후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팀의 5-4 승리에 앞장섰다.

이정후는 이날 팀이 0-3으로 뒤진 4회 솔로 홈런, 1-3으로 따라붙은 6회에는 역전 스리런을 뽐내며 ‘원맨쇼’를 펼쳤다.

MLB에 데뷔한 지난 시즌 5월 아껴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한 이정후는 자신의 첫 양키 스타디움 경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3연전에서 친 4안타(9타수)가 홈런 3개와 2루타 1개다. 또 7타점을 쓸어 담으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인터뷰 홈페이지는 ‘이정후가 첫 양키스 원정에서 났다’고 평가했고, MLB닷컴 역시 ‘이정후의 홈런 2방이 양키스 원정 워닝 시리즈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가 양키스 원정에서 워닝 시리즈를 따낸 것은 인터리그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정후의 페이스는 MLB 데뷔 시즌이던 지난 해와는 또 차원이 다르다.

이정후는 지난 시즌 37경기에서 145타수 38안타, 타율 0.262, 홈런 2개, 8타점,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 0.641을 기록했다.

올해는 14경기에서 54타수 19안타, 타율

0.352, 홈런 3개, 11타점, OPS 1.130으로 펄펄 날고 있다.

2루타는 지난 시즌의 2배인 8개를 때려내며 리그 최다를 기록 중이고 도루 3개 역시 지난 시즌 2개보다 1개 더 많다. 득점도 16득점을 올려 지난 시즌 15득점을 넘었다.

한 경기에서 홈런 2개를 날린 것은 이정후가 미국 진출 이후 처음이다.

주요 타격 지표에서도 이정후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4일 현재 이정후는 타율 5위, 출루율 10위(0.426), 장타율 2위(0.704), OPS 2위에 올라 있다. OPS 1위는 양키스의 ‘거포’ 애런 저지(1.228)다. 2루타 8개는 카일 터커(시카고 컵스)와 함께 리그 최다를 기록 중이며 안타 13위, 타점은 공동 22위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전에 상대해 본 적이 없는 투수들을 상대로 이런 성적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공을 맞는 기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투수들을 상대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칭찬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로 나온 로건 웹 역시 “이정후는 주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 야구를 보면 경기장 환경이 시끄러운데 이정후는 거기에 적응이 돼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웹은 이어 “이정후는 이렇게 중요할 때 해줄 능력이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전국대회 ‘금빛 스매시’

올해 첫 대회 단식서 금 4·은 1·동 1개 획득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이 ‘제7회 경남탁구협회 장애인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금빛 스매시를 선보였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조재관 감독, 곽호근 코치, 김영진, 김정철, 박진철, 남기원, 서수연, 김성욱)은 최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금 4, 은 1, 동 1개를 획득했다.

먼저 남자 4체급에서는 김영진과 김정길이 출전해 그룹스테이지 각 1위를 차지하며 8강에 올랐다. 이들은 8강부터 3-0 완승으로 상대 선수를 모두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집안 싸움인 열린 결승전에서는 김영진이 3-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김정길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2체급에서는 박진철이 그룹스테이지 1위를 차지한 뒤 8강부터 결승까지 3-0으로 승리했다. 결승에서는 고희영(전남) 역시 3-0으로 따돌리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1체급에서는 남기원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지난해 국내대회(5개) 및 국제대회(11개)에 참가해 금 55, 은 17, 동 22개를 획득하며 전국 최강팀의 위용을 뽐냈다. 특히 지난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 금 1(김영진)·은 1(서

수연)·동 3(김정길, 박진철, 서수연)을 획득하며 광주 탁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친 바 있다.

조재관 감독은 “동계시즌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올해 첫 대회 스타트를 잘 끊어준 선수단에게 감사할 표현이다”며 “이 기세를 유지해 오는 10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지역선수권대회’에서 전원 금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대회는 단식 종목만 이뤄진다. 국제대회는 랭킹 시스템 변경에 따라 대회별 퓨처(참가제한 없음), 챌린저(하위랭크), 엘리트(상위랭크)로 구분된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내년 11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쿼터 획득(세계랭킹으로 선발)을 위해 올해 개최되는 8개 국제대회 중 예산을 고려, 참가 대회·인원 수를 조정해 출전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제7회 경남탁구협회 장애인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금 4·은 1·동 1개를 획득한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 실시

선수 등 250명 대상...인식개선 교육 추진도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 선수 및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2025 시도장애인인권보호지원사업 스포츠인권교육’을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장애인체육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5 시도 장애인인권보호지원사업 인권교육’은 외부 교육전문 강사를 초청, 스포츠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

선 교육을 통해 스포츠인권과 장애인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시장애인체육회는 14일 기업 소속 선수(한전 KPS·한국전력공사·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알프스·한국광기술원)를 시작으로 15일 시·서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6일 동·남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장애인체육 중

사자, 17일 광산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장애인체육 종사자, 18일 북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장애인체육 종사자까지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총 25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스포츠인권 강사로는 성선에 장애인센터연구원 대표,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배해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를 초빙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종사자 및 선수들이 스포츠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